

# 국가기록 관리 표창 “대학 역사 전시관 설립 기대”

장보경 기자 jbg9687@knu.ac.kr

우리학교가 국가기록 관리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국가기록 관리 유공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 표창은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기록 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 공적을 쌓은 단체에 수여하는 상이다.

지난 9일 서울캠퍼스 본관에서는 표창장 수여식이 있었다. 6월 9일은 ‘세계 기록의 날’로, 올해는 ‘세계 기록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후 맞이하는 첫 해다. 수여식은 수상 경과 보고, 표창장 수여, 수치 달기, 총장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수여식에서 경희기록관 남기원 과장은 “올해 우리학교가 기록 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남 과장은 “다른 대학과 달리 법인기록물을 관리하고 있다는 점이 수상의 주된 이유”라며 “각종 기록문화 프로그램을 잘 운영해 표창을 받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한국대학기록관협의회 회장교로서 맡은 역할을 성실히 수행했다는 공적을 인정받아 수상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한국대학기록관협의회에는 경희기록관 김희찬 관장이 회장으로, 남기

원 과장이 사무국장으로 있다.

현재 우리학교는 약 30만 적의 필름 자료를 가지고 있다. 김 관장은 “역사가 아주 오래된 대학들은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귀중한 자료를 분실했다”며 “우리학교는 한국 전쟁 이후 체계적으로 자료를 관리하고, 행사가 있을 때마다 사진과 음성 자료를 남겨 놨다”며 자부심을 드러냈다. 김 관장에 따르면 경희기록관의 최종 목표는 보관하고 있는 자료 전부를 디지털화해서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전체 자료의 36.5%가 디지털화됐다. 김 관장은 “지난 10년 동안 디지털화에 힘썼지만 아직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기록 관리 분야에서 공적을 인정받은 경희기록관에도 고민은 있다. 기록물을 보존할 공간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김용은 실장은 “우리학교는 약 20°C에서 필름 자료를 보관 중”이라며 “일반적으로 필름은 1°C 내외의 수장고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해당 공간이 마련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또한 “외국 대학은 각 부서의 자료가 모두 기록관으로 이관된다”며 “우리학교도 그렇게 된다면 보관 공간이 많이 부족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일 우리학교가 ‘국가기록 관리 유공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왼쪽부터 한균태 총장, 경희기록관 김희찬 관장.

(사진=장보경 기자)

이날 수여식에 참여한 한균태 총장은 “기록은 후대에 전승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기록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공간 부족 등 경희기록관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려는 의지를 내비쳤다.

지난 2010년에 설립된 경희기록관은 올해 설립 10주년을 맞이했다. 경희기록관은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설립됐다. 남 과장은 “대학의 역사를 온전히 보전하고, 체계적이고 민주적인

대학 운영을 위해서는 기록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경희기록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설립 이후 경희기록관은 활발한 수집활동 전개와 기록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노력해 왔다. 이러한 노력은 경희기록관은 현재 약 4만3천 건에 달하는 기록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학교 주요 행사 때 전시회를 열어 달라는 요청도 빈번히 받고 있다.

경희기록관은 앞으로도 기록 관리와 수집에 힘쓸 예정이다. 남 과장에 따르면

경희기록관은 학내 구성원과 일반인이 우리학교의 역사를 관람할 수 있도록 역사전시관을 설립하는 것과 더불어 기록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기록 관리의 모든 절차를 전산화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교 100주년 교사편찬을 대비해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과정도 남아있다. 남 과장은 “아직 남은 과제가 많지만, 기록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구성원의 의식이 높기 때문에 곧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 대학원생 성폭행 혐의로 교수 구속

김지원 기자 kjw990327@knu.ac.kr  
김창호 기자 k.c\_hoxx@knu.ac.kr

우리학교 A교수가 대학원생 제자 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사실이 알려졌다. 현재 A교수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결정에 따라 구속 기소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사건에 대한 학교 내부의 조치는 지난달 29일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경찰에 신고가 이뤄진 시점인 지난 해 11월과의 간극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A교수가 최근까지도 학부 수업을 지속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학교가 2차 피해 방지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서울 마포경찰서는 “교원과 학생 간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사립 대의 경우에도 공무원 범죄 수사개시 통보 원칙에 따라 교원에 대한 형사 사건 수사가 개시되었음을 학교에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도 “특정 사건의 수사통지 여부를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보호조치와 관련해 성평등상담실은 “보호조치가 이뤄져야 하는 것은 맞지만 각 사건과 유형에 따른 다양한 형태와 방식이 있다”며 “현 시점에서 최근 논란이 되는 사건과 관련한 보호조치에 대해 언급하는 것

은 비밀유지 원칙을 벗어나기에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교육부가 배포한 ‘대학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은 접수 및 상담 단계에서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조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와 가해 행위자를 분리시키는 등의 피해자 보호조치 필요성을 담고 있다.

해당 사건을 두고 성평등상담실은 “현재 성평등상담실에 신고, 접수된 이후 피해자와 협조 하에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며 “그러나 경희대학교 성폭력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규정상 사건 관련 모든 사항에 대해 비밀유지가 원칙이므로 자세한 이야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유추할 수 있는 정보와 조사 및 처리 과정을 일체 언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건 진행에 따라 추후 이뤄질 수 있는 내부 징계에 대해서도 “징계에 대해서는 조사단계 이후 개최되는 성폭력대책위원회에서 결정되며 이는 해당 부서에서 진행된다”며 “징계 내용 역시 개인정보이기에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신문의 취재 결과, A교수의 수업은 현재 다른 교수가 대신 맡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학과의 조교 C씨는 “교수님 개인사정으로 인해 13~14주차 수업은 다른 교수님이 맡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 공대 건물 열람실 리모델링 및 정비 완료, “개방은 아직”

박창원 기자 macpark342@knu.ac.kr

【국제】 공과대학(공대) 건물 열람실이 새 단장을 마쳤다.

공대 행정실 층은 지난 4일 “환경 노후화로 두 달간 실시한 리모델링과 정비 공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사는 작년 12월 23일부터 올해 2월 23일까지 ‘2019 대학혁신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공대 건물 C동 1층에 위치하던 열람실은 지하 2층으로 자리를 옮겼다. 공대 행정실은 “기존 1층 열람실이 복도를 통행하는 구성원의 소음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지하 2층 화장실 환경 또한 개선됐다. 지하 2층 남녀 화장실 출입구 분리와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들에 대한 후속조치다.

기존 168석이던 좌석은 186석으로 증설됐다. 지속적으로 제기된 사석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좌석 예약 시스템과 좌석 발급기도 새로 도입했다. 새로운 좌석 예약 시스템은 중앙도서관 시스템과 동일하다. 공대 행정실은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이용자가 도서관의 열람 좌석 시스템처럼 학생증으로 인증한 뒤 좌석을 부여받고 사용하게 된다”며 “해당 시스템이 사석화 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 설명했다.

공대 열람실을 자주 이용한다는 김민배(산업경영공학 2018) 씨는 “1층에 강의실, 사물함 등이 있어 학생들이 많

기존 168석에서 18석 증설, 새로운 좌석 예약시스템 도입

“개방은 코로나19 종합상황실 결정에 따라”

이 다니다 보니 다소 시끄러웠다”며 “지하로 옮기게 돼 조용한 학습 환경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과대학 소속 A씨는 “공대 열람실 사석화 문제로 항상 중앙 도서관에서 공부 했었다”며 “이제는 전공 수업 들은 뒤 중앙도서관까지 가야하는 부담을 덜었다”고 말했다. 공대 건물을 이용하는 응용화학과 학생 역시 리모델링된 열람실을 이용 할 수 있게 됐다. 작년 11월 4일에 공포한 ‘공과대학 열람실 관련 합의문’에 따라 열람실 운영비용은 응용화학과와 공대 재학생 인원 비율에 따라 각 학과 및 단과대가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열람실 개방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는 이유로 부분개방 계획이 취소된 것이다. 공대 학생회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 추세를 보여 부분개방을 계획했었다”며 “하지만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하고 열람실이 지하에 위치해 환기가 어려워 개방 계획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공대 행정실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정책과 함께 대학 본부 주관부서인 코로나19 종합상황실의 정책결정에 의해 개방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 말했다.



공과대학 건물 C동 지하 2층에 마련된 열람실 모습.

(사진=박창원 기자)